

대전지역 영유아의 수유 및 이유실태 조사

왕 수 경[†] · 김 지 현

대전대학교 이과대학 식품영양학과

A Study on Infant Feeding and Weaning Practice in Taejon

Soo-Gyoung Wang[†] · Jee-Hyun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aejon University, Taejon,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weaning practice of 198 infants in Taejon city in October, 1998. Information on infant feeding and weaning practices were obtained by interviewing mothers in gynecologist and pediatric clinics located in Taejon.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In this survey 37.4% of the infants were breast-feeding, while 31.3% of them were bottle-feeding and 29.3% of them were mixed-feeding. The reason for bottled-feeding was due either to the lack of breast-milk secretion or mother's job.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mother and maternal job affected the feeding methods before weaning. Lower rates of breast-feeding were found among mothers with a lower level of education. The breast-feeding rate was lower in full-time and part-time job worker groups than in housewif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eeding methods according to family income. Among the subjects, 71.5% of infants began to be weaned within 7 months. The onset of weaning was delayed in the full-time worker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nset time of weaning according to feeding method,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mother, and family income. 60.6% of infants received fruit juice and 29.6% of them received cereals for first-given-supplementary food. 'For baby's nutritional status' was the most common motivation for the onset of weaning. Commercially prepared foods were used more than home-made food for supplementary food.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4) : 489~495, 1999)

KEY WORDS : infant feeding · breast-feeding · bottle-feeding · weaning practice.

서론

영유아기 건강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틀이 된다는 의미에서 전 생애를 통해 어느 시기의 건강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수유란 생명이 모체내의 환경으로부터 출생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최적의 상태로 적응할 수 있도록 모체를 통하여 분비되는 자연적인 영양공급수단이다. 따라서 모유는 영아기 건강증진을 위한 최상의 천연식품일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이어지는 영유아기는 모성 건강에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세계적으로 모자보건의 3대 주요문제로 영양불량, 감염 및 임신기간단축 등이 지적되고 있는

데, 모유수유실천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모유는 모체로부터 분비되는 자연 영양으로 영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 등을 포함하는 이상적인 식품이다. 모유의 장점은 이같은 영양학적 우수성 이외에도 각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치아와 뇌의 발달을 돕는 장점이 있고 영아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 면역작용(Ogra & Ogra 1978)이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또한 어머니에게는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모유 수유시에 유방암의 발생을 억제하고(Cameron & Hofvander 1975) 산모 자신의 가치감을 강화시키고(방태륜 1984) 배란을 지연시켜 자연 피임이 되게하는(Schoenborn 1976) 등 영양이 모성과 영아 모두에게 보다 바람직하다는 수유 방법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Mata 1978).

영아섭식에 관한 논쟁은 서구사회의 모유수유 경향이 감

[†]Corresponding author : Soo-Gyoung Wa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Taejou University, 96-3 Yong Woon-dong dong-gu, Taejon 300-716, Korea
Tel : 042) 280-2470, Fax : 042) 283-7172
E-mail : gyoung@dragon.taejon.ac.kr

소되고 인공영양이 급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였고(Dugdale 1986), 전술한 모유수유의 우수성의 재확인으로 서구사회는 모유수유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명백해지고 있다(Jensen 등 1988). 미국의 경우 1900년대 이후 과거 70년간 영아의 정상적인 수유법으로서 영아전반기의 모유수유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모유의 여러 장점들이 재인식되기 시작하고, 미국소아과 학회(1980)에서 모유수유의 우수성 및 중요성에 대한 보고가 발표되면서 모유 수유율이 증가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모유 수유율은 25%(Martinez 등 1981)이었으나 1988년에는 모유 수유율이 60%정도(Jensen 등 1988)로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모임인 LLLI(La Leche League International)가 결성되는 등 모유수유의 장점을 인식하고 실천에 대해 매우 적극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모유수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모유 수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김경희 등 1985; 이정실·김을상 1991), 반면에 인공수유가 최근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김혜숙 1992).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지역의 영아전반기의 모유수유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1960년대의 약 80~90%(이현금 등 1968)에서 70년대 후반의 60%(정규봉·권혜숙 1975), 80년대 후반의 29~35%(김분한 1986)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손경희 등(1992)은 1991년의 서울지역에서의 모유 수유율 16%로 보고하였으며, 1993년에 실시된 서울지역에서의 조사에서는 10%정도로 나타났었다고 한다.

이유란 영유아에게 유즙만을 먹이던 급식형태에서 점차 유동식, 반유동식, 고형식순으로 공급하는 식생활의 변화과정이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생후 3~5개월경부터는 모유나 우유만으로는 영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철분 및 칼슘,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등을 충족시킬 수 없다. 철분은 출생시 모체로부터 3~4개월의 저장분을 받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아의 체중이 출생시의 2배가 될 때 거의 고갈되므로 철분함량이 적은 모유나 우유만을 섭취할 경우 철분결핍 빈혈을 일으킨다. 조제분유만을 먹일 경우 철분과 비타민 C를 모유 영양아보다 더 일찍 보충해 주어야한다고 한다(김숙희 등 1994). 지나친 조기 이유는 비만이나 알러지 발생률이 높다고 하며, 반면 이유의 지연은 신체의 성장저하, 빈혈등 영양실조를 야기한다고 한다. 이유시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 WHO와 UNICEF에서는 이유의 시작시기를 아기의 체중이 출생시의 2배가 될 때, 아기의 체중이 6kg정도가 될 때 등으로 보고 있다(문수재 등 1994). 최근까지의 이유실태 조사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유의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이유시작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이유의 시작시기가 빨라지고, 도시의 영세지역에서는 이유시작시기가 늦은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박명윤 1980; 손경희 1992; 송요숙a 1991).

영유아 영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점은 건강한 영유아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하는가 하는 것이다(Axelsson 등 1987). 이런 관점에서 모유수유의 적정기간과 이유식의 실시시기 및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지역의 수유 및 이유 섭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전 광역시 영유아의 수유 및 이유 보충식 급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의 5개 구(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에 소재한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1998년 10월 현재 이유 실시중이거나 이유를 완료한 영유아와 함께 방문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 설명서를 배부하고 이에 동의한 198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영유아 198명으로 남아가 105명 여아가 93명이었다. 조사 방법은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자가 직접 면담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자가 직접 기록하게 하였으며 조사원은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4학년 재학생을 미리 교육시켰다. 설문지 내용은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가족상황 및 가정 경제 수준을 묻는 일반환경실태 8문항, 조사대상 유아의 수유방법, 각 수유방법을 택한 이유 및 수유 간격 등 수유실태 12문항과 이유식 시작시기와 처음 이유식으로 먹인 식품 및 시판 이유식 사용 유무 등 이유실태에 관한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자료는 SAS program(Joyner 1986)에 의해 통계 처리하였다. 수유방법과 수유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리고 이유 보충식 급식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의 유의성은 Chi-square 검증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요인별 유의치는 5%이하에서 인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Table 1에서 조사 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53%, 여아 47%이었고, 출생순위는 대부분 첫째와 둘째 아기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Infant's birth weight(kg)	
Male	3.25±0.75 ¹⁾
Female	3.22±0.47
Sex of infants	
Male	105(53.0) ²⁾
Female	93(47.0)
Education level of mother	
College	102(51.6)
High school	88(44.4)
Middle school	8(4.0)
Maternal occupation	
Housewife	125(63.3)
Full-time worker	42(20.9)
Part-time worker	31(15.8)
Income(1,000 Won)	
910 ~ 1,300 Won	25(12.4)
Less than 900 Won	65(33.0)
1,300 ~ 1,700 Won	61(30.9)
Above 1,710 Won	47(23.7)
Parturition(%)	
Natural	130(65.7)
Caesarian	68(34.3)
Total	198(100.0)

1) mean±standard deviation

2) Number of Subject(%)

90.4%에 해당하였으며 출생시 체중은 남아 3.25±0.75kg 여아 3.22±0.47kg으로 남녀아 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26~35세가 69.7%였고,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3%, 고졸 44.9%, 대졸이상이 52.1%로 97%가 고졸 이상이었다. 어머니들의 직업관계는 주부가 63.3%로 가장 많았으며 종일근무가 20.9%, 시간제 근무 및 부업이 15.8%로서 학력이 가장 높은 대졸에서 종일근무가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 정도는 90만원이하가 12.4%, 91~130만원이 33.0%, 130~170만원이 30.9% 그리고 171만원 이상이 23.7%이었다. 출산횟수는 1회가 44.4%, 2회가 46%로 가장 많았다. 첫아기 출산시기는 26~30세가 58.1%로 가장 많았고, 21~25세가 37.9%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분만 형태는 자연분만이 65.7%로 수술에 의한 분만 34.3%에 비해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87.9%가 정상분만(임신 38~42주)을 하였다.

2. 영유아의 수유 현황

대전시 영유아들에 대한 이유하기 전 수유방법은 Fig. 1에서 보듯이 모유영양이 전체의 37.4%, 인공영양 31.3%, 혼합영양 31.3%를 차지하여 1980년 이전의 연구결과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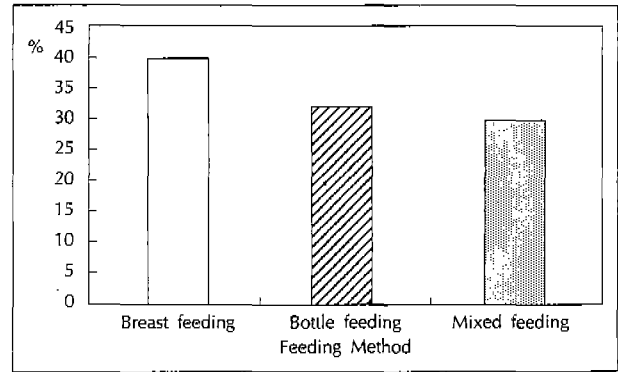


Fig. 1. Infant's feeding method before weaning.

교하여 볼 때, 대전지역(정영진 1979)60.4%, 군산 시내 및 옥구군(이진희 1977) 59.7%, 김성택(1979) 46%, 대도시 지역(이현금 등 1978) 42.8% 이었던 것보다 본 조사에서 모유영양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1990년대 들어서 도시지역에서의 모유영양 비율 22.7%로 나타난 송요숙(1991a)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전지역이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 모유영양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유무에 따라 수유방법간에 유의적 차가 있어 중졸이하에서 83.3%가 모유영양을 했고,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영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모유 수유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는 이정실·김을상(1991), 한국영유아의 수유실태조사(김경희 등 1985), 송요숙(1991a), 정영진(1979)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수유방법에는 유의적 차가 없었으나 저소득층인 소득 90만원 이하 가정에서 수유방법별 차이가 뚜렷해 모유영양이 54.5%로 가장 많았다(Table 2).

수유방법 결정시기는 전체의 41.1%가 임신 전에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36%는 출산 후에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를 끝낸 시기는 모유영양일 경우 생후 9.81±4.66개월로 나타났고, 인공영양은 생후 14.52±7.41개월로 나타났다. 모유를 먹인 경우는 76.9%가 임신 전에 모유를 먹이기로 결정을 했으며, 인공영양의 경우는 출생직후 결정이 69.4%, 혼합영양은 출생직후 결정이 39.7%, 생후 2~3개월 후 결정이 37.9%이었다(Fig. 2). 인공영양이나 혼합영양을 선택한 이유로는 모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고, 직장관계가 27.3%, 유두통증이 9.1%, 엄마의 건강상의 문제가 6.3%, 아기가 싫어해서가 7.0%이었으며 미용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2.8%를 차지하였다. 김성택(1979)의 연구에서는 모유량 부족 60.4%, 직장 17%, 유방의 질환이 7.6%, 아가의 질병이 5.7%, 미용상 3.8%로 나타났고, 이정실·김을상(1991) 연구에서도 모유의 부족 37.3%, 직장관계 32.7%, 엄마의 건강조건 24.5%

Table 2. Comparison of infant's feeding method before weaning by mother's education level, maternal job and family income

	Breast-feeding	Bottle-feeding	Mixed-feeding	χ^2 -test
Education level of mother				
College	36(35.3) ¹⁾	30(29.4)	36(35.3)	p<0.05
High school	35(39.8)	31(36.4)	21(23.8)	
Middle school	7(83.3)	0(0.0)	1(16.7)	
Maternal job				
Housewife	58(46.0)	32(26.6)	34(27.4)	p<0.05
Full-time worker	10(22.0)	16(39.0)	16(39.0)	
Part-time worker	10(32.3)	13(41.9)	8(25.8)	
Income(1,000Won)				
Less than 900Won	14(54.5)	7(27.3)	4(18.2)	NS ²⁾
910 - 1,300Won	26(39.0)	20(30.5)	19(30.5)	
1,300 - 1,700Won	20(30.4)	20(33.9)	21(35.7)	
Above 1,710Won	18(35.7)	14(31.0)	14(33.3)	
Total	78(39.4)	61(31.3)	58(29.3)	198(100.0)

1) Number of Subject(%)

2) NS : not signif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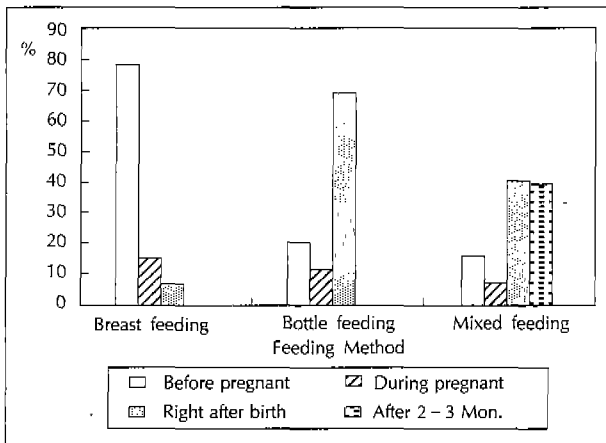


Fig. 2. The time of determining infant's feed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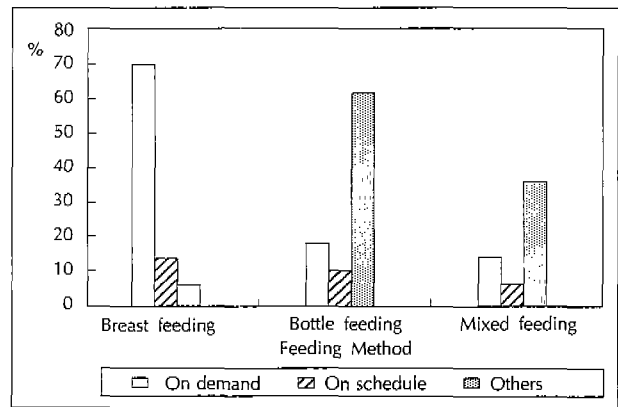


Fig. 3. Percentage of Infant's feeding on demand or on schedule.

로 본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여, 이는 모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임신 전에 필요하고, 임신 때부터 모유 수유를 위해 유방 준비를 시작하여 분만 직후 곧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모유가 부족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위한 어머니의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취업 주부의 수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취업 주부들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인공유는 54%가 N사 제품이었고 23.9%가 P사 제품으로 TV 또는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익숙한 회사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유간격에 있어서 1991년의 연구(김화숙 1991)에서는 아기가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하는 경우가 67%였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수유를 하는 경우는 26.3%를 차지했다. 김효진(1992)의 연구에서는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인다가

53%이었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마다 먹인다가 43.5%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의 53%가 규칙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40.9%는 아기가 원할 때마다 주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모유영양의 경우 56.4%, 인공영양의 경우 21%, 혼합영양의 경우 41.4%가 아기가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하였으며, 인공영양의 경우 74.2%, 혼합영양의 경우 48.3%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수유하였다(Fig. 3). Marlow(1988)에 의하면 영아가 먹고 싶어 할 때 수유를 하는 것이 모자간의 정서적 안정을 갖는데 유익해 권장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수유를 끝낸 시기는 모유영양일 경우 생후 9.81±4.66개월로 나타났고, 인공영양은 생후 14.52±7.41개월로 나타났다.

3. 영아의 이유 보충식 급식 현황

조사대상 유아의 이유 보충식 급식 시작 시기는 3개월 이

전이 4.5%, 전체의 44.1%가 생후 4~5개월경에 영유아에게 이유 보충식을 급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71.5%가 생후 7개월 이전에 이유 보충식 급식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대전지역의 유아 이유실태를 연구한 정영진(1979)의 3개월 이전이 8%, 4~5개월 30.3%, 그리고 전체의 71.0%가 7개월 이내에 이유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 그리고 6개월 이전에 75.9%가 이유를 시작한 이정실·김을상(1991)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도시 지역에서 모든 영아가 6개월 이내에 이유를 시작한 송유숙(1991a)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 이유 보충식 급식 시작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Cameron(1983)에 의하면 보충식을 늦게 시작한 영아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며 체중이 증가되지 않으며, 빈혈증, 신경증 등의 영양장애가 점차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Table 3에서 보듯이 수유방법과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이유 보충식 시작시기 비교에 있어서 유의적 차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모유 영양이는 생후 6개월에, 인공 영양아는 생후 3개월에 보충 식이를 주는 것을 권장되고 있는데(김숙희 등 1994), 본 조사에서는 수유방법에 따른 유의적인 차가 없었으며 이유시작의 적기인 4~7개월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3개월 이내에 이유 보충식 급식 시작이 증가하는 것으로

Table 3. Comparison of onset time of weaning by infant's feeding method, educational level of mother, maternal job, and family income

Months	0-3	4-5	6-7	8-9	10<	χ^2 -test
Infant's feeding method						
Breast-feeding	3(4.3) ¹⁾	38(49.3)	18(23.2)	10(11.6)	9(11.6)	NS ²⁾
Bottle-feeding	2(3.5)	29(49.1)	18(29.8)	8(12.3)	4(5.3)	
Mixed-feeding	3(5.3)	20(33.3)	18(31.6)	13(21.0)	5(8.8)	
Education level of mother						
College	3(3.2)	42(41.5)	30(29.8)	15(13.8)	12(11.7)	NS
High school	4(4.9)	43(48.2)	24(27.2)	14(14.8)	5(4.9)	
Middle school	1(16.7)	2(33.3)	0(0.0)	2(33.3)	1(16.7)	
Maternal job						
Housewife	5(4.4)	64(51.8)	33(26.3)	16(12.3)	7(5.2)	p<0.05
Full-time worker	0(0.0)	16(37.8)	12(29.7)	9(21.6)	5(10.8)	
Part-time worker	3(10.7)	7(21.4)	9(28.6)	6(17.9)	6(21.4)	
Income(1,000 Won)						
Less than 900 Won	0(0.0)	11(45.5)	8(31.8)	4(13.6)	2(9.1)	NS
910-1,300 Won	4(6.8)	31(47.4)	16(25.4)	6(8.5)	8(11.9)	
1,300-1,700 Won	1(1.8)	23(37.5)	22(35.7)	13(21.4)	2(3.6)	
Above 1,710 Won	3(7.1)	22(47.6)	8(16.7)	8(16.7)	6(11.9)	
Total	8(4.5)	87(44.1)	54(27.4)	31(15.1)	18(8.9)	198(100.0)

1) Number of Subject(%)

2) NS : not significant

Table 4. Weaning practices of infants

	Number of Subject(%)	
Kinds of supplementary food at onset time of weaning	Cereals	59(29.6)
	Fruit Juice	121(60.9)
	Meats	5(2.8)
	Eggs	8(3.9)
	Vegetables	3(1.7)
	Potatoes	2(1.1)
Motivation for onset of weaning	For baby's nutritional status	130(65.6)
	Insufficient milk secretion	25(12.9)
	Neighbor's recommend ation	25(12.5)
	Baby's teeth	16(8.0)
	For mom's health	2(0.9)
Ways of supplementary food preparation	Commmercial supplementaryfoods	118(58.6)
	Home-made supplementary foods	80(40.4)
Total	198(100.0)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이유 보충식 급식 시작시기는 유의적 차가 있어 가정 주부일 경우에 대부분 7개월 이전에 이유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 보충식 시작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여 직업이 있을 경우 시간 부족에 따른 이유 보충식 급식이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유 보충식 시작시기가 어머니의 직업, 소득수준과 무관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빨라져서 대졸자에서 유의차를 보였던 이정실·김을상 연구(1991), 송요숙(1991a)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유시작 식품은 전체의 60.9%가 과즙으로, 그리고 전체의 29.6%가 곡류로 시작하였다(Table 4). 방홍기 등(1987)에 의하면 처음 준 음식 종류는 87.5%가 과일류, 이정실·김을상(1991) 연구에서는 과즙이 전체의 78.0%이었다. 본 조사 결과는 과즙 35.2%이었던 1970년대 말의 대전지역(정영진 1979)에 비해 과즙으로 이유를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매스컴 등을 통한 정보의 수용이 증가되었고, 상품화된 과즙의 구입이 편리하고 조리방법도 쉬워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유식을 주게된 동기는 Table 4에서 보듯이 아이의 영양을 위해서가 65.6%, 모유의 부족 12.9%, 주위의 권유 12.5%, 아이의 치아가 나서 8.0%,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0.9%로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가 23.4%이었던 1978년 대전지역(정영진 1979) 연구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가 56.9%, 젖이 부족하여서 18%로 나타난 심재영(1985) 연구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 입장이 영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수 등(1994)의 연구에서도 아이의 영양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이유 보충식 급식은 전체의 58.6%가 시판되는 이유식을 먹고 있었고, 40.4%는 집에서 만든 이유식을 먹고 있었다(Table 4). 시판 이유식을 먹이는 율이 1985년 69.0%(방홍기 등 1987), 1990년에 이르러 66.7~100%(송요숙 1991b)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판 이유식의 사용이 간편하고, 종류가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고 구입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시판 이유식을 많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이에게 신선한 재료로 질적인 영양식품을 제공할 수 있고,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이유식을 공급함으로써 아이의 정서적인 면과 어머니에게도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198명(남아 105명, 여아

93명)을 대상으로 1998년 10월에 영유아들의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로 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97%가 고졸이상이며 주부가 63.7%, 종일근무 20.7%, 시간제 근무 및 부업이 15.6%이었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54.6%가 130만원 이상이었다. 영유아의 이유 이전의 수유방법은 모유영양이 37.4%, 인공영양이 31.3%, 그리고 혼합영양이 31.3%이었고 인공영양을 선택한 이유로는 모유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47.6%, 직장관계가 27.3%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유무에 따라 수유방법간에 유의적 차가 있어 중졸이하에서 83.3%가 모유영양을 했고,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영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모유 수유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수유방법간에는 유의적 차가 없었다. 이유 보충식 급식의 시작시기는 대상자 전체의 71.5%가 7개월 이전이었고 직업이 있을 경우 이유 보충식 급식 시작시기가 유의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수유방법·어머니의 교육수준·소득수준에 따른 이유 보충식 급식 시작시기에 있어서 유의적 차가 없었다. 이유식을 주게된 동기는 65.6%가 아이의 영양을 위해서였다. 제일 먼저 먹인 이유식은 과즙이 전체의 60.9%이었고, 조사대상 전체의 58.6%는 시판되는 이유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모유 수유율이 감소하고, 반면에 인공 수유율은 증가되고 있어 영아의 영양학적 면과 면역학적 면을 고려할 때 모유 수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어머니의 수유에 대한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모유영양의 장점과 수유방법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 책자 등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더 활발히 개발되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유 보충식 조리법이나 이유 보충식 시작 시기 등 이유관련 전문 책자를 널리 보급하여 이들을 통한 제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경희·이근·김충희·이근구·신상만·한동관·문수지(1985) : 한국영유아의 수유 실태 조사. *소아과학* 28(10) : 8-12
- 김분한(1986) : 영유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9 : 158-166
- 김성택(1979) : 우리나라 영유아의 영양법 경향에 대한 조사연구. *소아과학* 22(5)
- 김숙희·유춘희·김선희·이상선·강명희·장남수 (1994) : 가족영양학. 242-249
- 김혜숙(1992) : 수유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지침. *대한간호* 31 : 22-27
- 김화숙(1991) :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1992) :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재 · 안홍석 · 이영미(1994) : 어린이영양과 건강. 수학사.
- 박명윤 · 채범석 · 김영남 · 모수미(1980) : 농촌보건사업 지역의 이유 및 어린이 식행동에 관한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5(2) : 55-71
- 방태륜(1984) :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 문화가 모유 수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홍기 · 김경희 · 박재욱 · 이상주(1987) :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소아과* 30(3) : 266-273
- 손경희 · 윤 선 · 이영미 · 민성희 · 전주혜(1992) : 서울 및 경기지역 유아의 수유 및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품화학회지* 7 : 309-321
- 송요숙(1991a) : 우리나라에서 영아의 수유 및 이유보충식 급식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영양학회지* 24(3) : 282-291
- 송요숙(1991b) : 임신부의 영양상태와 영아의 성장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심재영(1985) : 영유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도시지역 어머니들의 지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수 · 이상호 · 주진순(1994) : 강원도 춘천지역 유아의 이유 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7(3) : 272-280
- 이정실 · 김을상(1991) : 속초시 영유아의 이유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4 : 469-476
- 이진희(1977) : 영유아 영양법 및 이유실시에 관한 조사연구. *중양의학* 33(1) : 61-72
- 이현금 · 독고영창 · 황우익(1968) : 농촌지방 이유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 : 117-119
- 이현금 · 최민영 · 김철규 · 한동관 · 현우 · 이동기(1978) : 한국어린이의 이유에 관한 실태조사. *소아과* 21(10) : 661-672
- 정규봉 · 권혜숙(1975) : 한국영유아에 있어 모유, 우유 및 혼유영양법에 분포 및 성장에 대한 임상적 관찰. *소아과* 18 : 55-67
- 정영진(1979) : 영유아의 이유실태. *한국영양학회지* 12(1) : 23-30
- Axelsson N, Borulf S, Righard L, Raiha N(1987) : Protein and energy intake during weaning : I. Effects on growth. *Acta Paediatr Scand* 76 : 321-327
- Cameron M, Hofvander Y(1975) : Manual on feed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2nd ed. pp.18 New York, United Nation
- Cameron M, Hofvander Y(1983) : Manual on feeding infant and young children oxford Unifversity Press, pp.110-127
- Comittee on Nutrition on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1980) : Encouraging breast-feeding. *Pediatr* 65 : 65-658
- Dugdale AE(1986) : Evolution and infant feeding. *The Lancet* 22 : 670-673
- Jensen RG, Ferris AM, Lammikeefe CJ, Henderson RA(1988) : Human milk as a carrier of messages to the nursing infant. *Nutrition Today* 23 : 20-25
- Joyner SP(1986) : SAS/STAT Guide for personal computers. 6th ed,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 Marlow DR(1988) : Textbook of pediatric nursing.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 Martinez GA, Dodd DA, Samartgedes JA(1981) : Milk feeding pattern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first 12 months of life. *Pediatr* 68 : 863-868
- Mata L(1978) : Breast-feeding : main promotor of infant health. *Am J Clin Nutr* 31 : 2058-2065
- Ogra SS, Ogra PL(1978) : Immunologic aspects of human colostrum and milk. *J Pedeatrcs* 92 : 546-549
- Schoenborn CA(1976) : Breast feeding as a contraceptive method among a low income group of Teherani women. *Env Chld Hlth Dec*, pp.274-276